

2018 추석 가정 예배 순서

인도 : 가족 중에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묵상기도 인 도 자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오늘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아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기 도 가족 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고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깊은 골짜기와 넘기 힘든 언덕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소원해진 가족들에게는 화해와 연합이 있게 하시고, 축하할 일은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은 나눔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봉독 요한복음 7장 10~14절 인 도 자

- 10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 11 명절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 12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 13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 14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말 씬 명절에 기억해야 할 것 인 도 자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반드시 지켜야할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 그리고 칠칠절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절기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한 후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지내던 그 날들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모든 곡식과 과일을 저장한 후에 드리는 절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추석과 가장 비슷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추석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10절)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바쁜 일상속에서도 어떻게든 명절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유대인들 역시 명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대단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남자는 성전에 올라와 명절을 지키는 대단한 열심을 가진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정에 모인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이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역시 명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석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의 주인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명절이 되는 것이 명절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12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유대인 무리들 가운데에는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그 수군거림이란 예수님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서로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16,17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을 맞아 함께 모인 이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함께 모인 이 시간을 가장 의미있게 보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14절)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직접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들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속 마음을 이야기 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뜻하지 않게 신세를 한탄하고, 가족들간에 원망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우리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고, 은혜가 흐르고, 감사가 나올 때 그 명절은 최고의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우리 입술에서 말씀이 먼저 나오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 송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다 같 이

- 1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와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적에 큰 위로되시며 나 외로울때 좋은친구라
- 2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뵈기 원하네
- 3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후렴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 도 함께 기도하고 인도자의 기도로 마무리

주기도문 다 같 이